

혐오의 시대, 한국 기독교의 역할*

- 극우 개신교의 종북계이 혐오를 중심으로

이지성 (루터대학교 조교수)

- I. 들어가는 말: 광장에 멈춘 사람들
- II. 광장의 배후, 개신교 극우 집단
- III. 광장의 혐오, '종북계이'를 투사하다
- IV. 광장, 상상의 힘을 만나다
- V. 나가는 말: 광장의 새로운 주인공, 분별 있는 관찰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2.08>

* 이 논문은 2018학년도 루터대학교 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

• ABSTRACT •

The Role of Korean Christianity in the Age of Disgust: Focusing on
'Pro-north korean gay' Disgust of the extreme right wing protestantism

Prof. Lee, Jie Sung (Luther University)

The problem of disgust, which is prevalent in Korean society, is not solely the Korean Christianity's responsibility. Nonetheless, the Korean Christianity will have to be restored to the messenger of the Good News, not the main culprit of fake news, through seriously thinking about this phenomenon of disgust. This paper contains concern about this. This study focuses on the patterns, activities, and motives of extreme right-wing Protestants who have attended Taegeukgi rallie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ir disgust projected on 'North Korean sympathizing gay,' a recently emerging object of their criticism, thereby discussing about how the Korean Church can solve this problem. As a clue to the solution of the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e role of Martha Nussbaum's 'judicious spectator.'

Key words: Right-wing Christianity, Fake News, National Flag Rally, Pro-north Korean Gay, Martha Nussbaum, Disgust, Projective Disgust, Judicious Spectator

I. 들어가는 말: 광장¹⁾에 멈춘 사람들

토요일 오후, 어김없이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역 광장 주변에는 대형 태극기가 일렁인다. 2년 전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은 각지로 흩어졌지만, 태극기는 여전히 광장을 지키고 있다. 대형 십자가를 앞세우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성조기를, 언젠가부터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선 태극기 집회는 광화문 인근과 대법원 앞 등 서울 시내를 기준으로 매주 6곳 정도에서 열린다고 한다.²⁾

광복 73주년을 맞이한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는 사회 각계의 대대적인 광복절 관련 집회와 행사가 열렸다. 서울역에서 시작한 제 76차 ‘태극기 집회’ 또한 송례문을 지나 광화문까지 행진을 했다. 이날 태극기 집회는 집회 신고 인원 기준 27,500여명이 참석한 3.1절 집회 이후 최대 규모였다.

같은 날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계³⁾는 아침부터

-
- 1) 본 논문에서 ‘광장’은 일차적으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 부근의 집회 장소를 뜻하지만, 소통의 상징이자 열린 공간으로서의 ‘광장’을 의미한다. 또한 지금 극우 개신교인들이 독점한 ‘광장’이 가짜 뉴스가 아닌 곳 뉴스(복음)가 전해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있다.
 - 2) 태극기 집회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에서 시작되어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로 이어지다가 19대 대선 이후 이들은 대부분 19대 대선이 부정 선거라는 전제로 ‘문재인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세력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분산된 조직들 중 개신교와 연계된 주도적 단체들은 매주 대법원 앞에서 불법선거 주장을 이어가는 ‘사대본’ 과 이화영 목사의 ‘제19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 모임’, 서경석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새한국’ 등이다. 조혜수·조유빈·안성모, “광장에 남은 ‘태극기집회’, 그들은 누구인가” 『시스저널』 2018년 5월 31일자,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5649>, 접속일 2018.06.06.
 - 3) 한국 개신교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하나의 틀로 구분할 수 없는 개념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상대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특히 혐오에 관한 논의에서는 그 상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보수-진보의 개념 틀로 개신교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급적 ‘보수’ 라는 신학-신앙적 입장의 개념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미스바대각성 구국금식기도성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판하기 위한 기도회였다. 기도회 준비위원회⁴⁾는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께 싸움을 걸었는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역사는 없다’라는 큰 글씨의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행사의 취지인 사탄의 음모, ‘차별금지법’ 반대 문구를 일간지에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날 서울역에 들렀다가 역사 로비에서 친척 할아버지를 만났다. 친구로 보이는 분들의 무리와 함께 앉아 계신 할아버지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들려 있었다. 아침에 금식 기도회에 참가한 다음, 바로 열릴 태극기 집회를 기다리던 중이라고 하신다. 기도회와는 다른 모임이지만 뜻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 끝까지 참석할 거라고 하신다. 할아버지는 장로님으로 일흔을 갓 넘기셨고 평생 은행에 계시다 퇴임 하신 후에 여행을 다니시거나 교회를 섬기면서 조용히 봉사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동료들과 함께 자신들이 개신교 극우세력이며, ‘태극기 부대’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아르바이트나 동원된 인원이 아님을 몇 번이나 확인시켜 주셨다. 양 손에 든 태극기는 어디서 구했느냐는 질문에, 할아버지는 기도회 준비물이 ‘태극기’와 ‘성조기’였다고 멋쩍게 답하셨다. 그날 밤, 할아버지 카톡으로 잘 들어가셨는지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톡으로 집회 관련 소식 뿐 아니라 온갖 가짜뉴스들을 전달하며 태극기 부대로 ‘전도’를 시도하고 계신다.

지난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투하된 카톡 내용은 주로 ‘중북게이’ ‘이슬람 난민’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북한 쌀피주기’ ‘땅굴’ 간혹 4년 전 세월

보다는 소위 ‘태극기 집회’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극우 개신교 집단’으로 구분하고 있다.

- 4) 이용필 기자, “문재인 정부 탓에 경제·안보 자살, 한국교회 회개해야 -한기총·세기총·한사랑선교회 등 8월 15일, 구국 금식 기도 성회”. 『뉴스앤조이』 2018년 8월 6일자,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99>, 2018.08.15.

호 집회 사진이 지난주 사진으로 둔갑해서 나타나기도 했다. 하여간 종횡 무진 다양한 이슈들이었다.⁵⁾ 할아버지는 이 카톡 내용들은 목사님을 비롯한 소위 지식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 카톡방에서 ‘기도제목’으로 공유하기 때문에 매우 공신력 있는 내용들이며, 기존 언론에 현혹되지 말고 이 글들을 믿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다. 할아버지 이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다른 교회와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듯 보였다. 물론 공유되는 뉴스들은 기도제목이라고 부르기에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혐오 표현으로 가득했다. 혐오의 대상도 나날이 진화되었다. 빨갱이에 대한 혐오가 성소수자·중복게이에 대한 혐오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가 이슬람 난민 혐오로 진화하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태극기충’ ‘틀딱충’ 이라고 부른다. 서로가 서로를 벌레 보듯 한다. 지금, 광장은 혐오가 혐오를 낳는 중이다.

본 논문은 소위 사회의 엘리트이자 기독교인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을 목표로 살고 계시는 그 할아버지가 왜 ‘태극기 부대’임을 커밍아웃하시고, 주말마다 광장에서 혐오 단어 가득한 피켓을 들고 가짜뉴스 전달을 전도의 사명처럼 여기게 되었는지, 어쩌다가 할아버지는 ‘태극기충’으로 나는 ‘촛불좀비’로 불리게 되었는지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가짜뉴스를 전파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최근 한겨레신문의 ‘가짜뉴스 공장’⁶⁾ 기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밝혀진 바 있다. 한겨레신문은 가짜뉴스 진원지에 대한 탐사보

5) 2016년 3월 24일 김동문은 청어람 강연에서 “가짜 뉴스는 ‘이슬람’ ‘중복’ ‘동성애’ 등의 분야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며, 이 주제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배후 그룹들이 존재하며, 이 그룹들은 서로 겹치거나 동일한 채널을 통해 가짜뉴스가 확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문, “괴담에 속지 않기 위한 10가지 제안 『청어람매거진』, 2016년 2월 3일자, <http://ichungeoram.com/10038>, 접속일 2018.08.22.

6) 김완, 박준용, 변지민, “[단독]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신문』 2018년 9월 27일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접속일 2018.09.28.

도를 이어가면서 “극우와 개신교가 만나는 곳에 가짜뉴스 공장이 있었다”면서 가짜뉴스의 양태를 분석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전파되는지를 보도하고 있다. 현재 이 기사의 몇몇 사안에 관해서는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된 ‘에스더기도운동’의 소위 ‘인터넷 사역’ 혹은 ‘미디어 선교’, 그리고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한국 교회와 관계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사실임이 분명해 보인다. 에스더기도운동측은 보도 이후 한겨레가 ‘한국교회를 향한 탄압’을 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정작 탄압을 받는다는 주제로 지목된 ‘한국교회’는 한겨레를 향해서도 에스더기도운동을 향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어쩌면 전면에 나서 반대하기 불편했던 차별금지법 제정을 태극기 부대, 극우 개신교 단체가 전위부대가 되어 막아주는 것을 보면서 안도하면서 태극기총과 촛불집회가 함께 앉아 이웃 사랑을 기도하면서 서로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건 아닐까?

분명히 광장, 그리고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문제가 한국 교회만의 책임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한국 교회는 이 사회의 혐오를 진지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의 사명은 가짜 뉴스 제작, 유포가 아니라 좋은 뉴스의 전달자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런 고민에 대한 작은 자정 노력이다.

II. 광장의 배후, 개신교 극우 집단

논문은 우선 태극기 집회에 참가자들 중 기독교인들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극우 세력’에 대해 연구한 김진호는 “대형 십자가, 목사 가운을 입은 사람들, 기도하는 소리, 찬송가 소리 등이 태극기 집회 안에서 도드라지는데, 이들 중 목사가 동원한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며 수동적이고 심지어 집회의 성격도 모르는 사람도 대부분

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 행동들이 돌출적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분명 다른 부류의 개신교 신자들이 있었을 것”⁷⁾이라며 그들의 유형을 넷으로 구분한 바 있다.

첫째는 목사가 동원한 신도들로 노인들이 대부분이며, 소극적 참여자들이다. 다음은 ‘탈북자’들로 3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남한 내 탈북자 중 절반 이상이 보수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개신교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 연계 고리의 중요 역할이 재정적 후원, 취업, 인간 관계망 형성 등이다. 김진호는 이들 중 일부가 ‘알바테모’로 집회에 참석하기도 한다고 보면서, 이들은 대부분 극우적 탈북단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셋째는 소위 ‘광신자’ 부류인데, 그들은 1960년대 전후 산중 기도원을 주요 무대로 활동했던 대중신비주의 신봉자들로 1990년대 이후 산중기도원이 폐쇄되면서 귀속할 대안적 공동체를 찾아다니지만 환대받지도 정착하지도 못한 신자들이다. 이들은 주로 길거리 전도를 하거나 극우 이데올로기 투사가 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목사들의 통제 밖에 있으며 극우주의 단체의 열성 활동가들이다. 마지막은 개신교계열 극우 NGO 단체 소속 활동가들이다. 얼마나 많은 단체가 있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되는 종교적 테러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들은 주로 동성애나 이슬람, 종북 등에 강한 혐오를 드러내며 가짜 뉴스 등 사이버 테러에 앞장선다.⁸⁾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들 단체들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집회를 선동하고 이슈를 생산 및 전파하고 있으며, 이들 중심에 앞서 한겨레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로 단독 보도한 에스더기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와 그 산하 조직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7) 김진호,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우파 - 또 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황해문화』 제95호 (2017.06) 79.

8) 위의 책, 79~87 참조.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2007년 북한 인권과 통일을 위한 기도 운동과 탈북자 사역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는데 탈북민 센터, 지저스 아미, 미디어 선교, 동성애합법화반대 국민연합 등을 산하 단체로 두고 있다.⁹⁾ 특히 최근에는 에스더기도운동본부 오프라인 산하 단체들과 연동된 ‘개신교 넷-우익’ 계정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보인다.¹⁰⁾ 대표적으로는 ‘왕국의 역습’ ‘RED FILL’ ‘에텐 크리에이터스’는 미디어선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종북계이’ ‘이슬람’ 등의 이슈를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를 통해 전투적으로 양산하고 전파하고 있다.

특히 에스더기도운동본부는 탈북자,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저스 아미 (Jesus Army)라는 수련회와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며 느헤미야 국가금식기도성회,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등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설립과 동시에 대통령 선거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에 개입한 바 있다. 이들은 산하기관과 연계하여 각종 기도회와 교육을 통해 저변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에스더기도운동본부에서 생산되는 가짜뉴스는 몇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데, 양희송은 가장 폭넓은 기반은 종교계의 음모론(conspiracy)이 제공한다고 본다.¹¹⁾ 이는 주로 ‘신사도운동’으로 분류되는 계열에서 예언이나 특정한 신학적 입장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경우로, 예언의 성취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9) 에스더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pray24.net> 참조. 현재 단체 소개의 글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이전 자료집과 주요 설교 동영상 등을 통해 단체의 역사와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10) 에스더기도운동 등 극우 개신교의 대중운동 전략에 대한 논의는 김현준의 연구에서 심도 있게 제시된 바 있다. 김현준, “신국, 극우 개신교의 정치적 상상력” 『맑스큐무날레 종교 세션 자료집』 (2017), 26-27.

11) 양희송,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실상과 문제” 『시선 2017~2018 단행본 출판기념 이야기 마당_가짜뉴스와 개신교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8) 10.

특정한 정치·사회적 사안을 역사적 회복을 역행하는 징표로 보면서 이에 대항하는데, 주로 ‘동성애’ ‘이슬람’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표적이 된다. 이들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세계정보 음모론, 베리칩 생체이식 등을 거론하는 하위그룹부터 은사주의에 개방적인 한국 중대형교회 일반 신자 그룹 등이 포함된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뿐 아니라 개신교 극우 NGO단체들이 행사나 집회시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최근 이스라엘 국기를 사용하는 것이 일면 해석 가능해 진다.¹³⁾ 언뜻 어울리지 않는 상징물들을 집회 참가자들은 매우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익숙함의 배후에 극우 개신교의 주장과 그들의 행동 동기 파악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우선 태극기는 정부 수립부터 박정희 정권 때까지 국가주의와 반공을 결합시키는 의미의 상징물로 활용되어 왔다. 반공포로들의 시위, 북한 도발 규탄 관제 데모 등이 대표적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부상한다. 모 기업은 고층 사옥에 초대형 태극기를 걸어 놓고 애국주의를 표방한 영화 속에서 ‘국기 하강식’ 장면이 정치권에 회자되는 등 태극기는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다시 부각된다. 이후 태극기는 전 국민이 반공의 기치 아래 하나로 통합되기를 꿈꾸기 위한 기재이며,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경고로서 광장에 나타나게 되었다.

성조기의 경우, 2004년 친미집회 당시 시위대가 들고 나서면서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당시나 역사적으로나 성조기와 태극기는 동등한 입장은 아니었다. 1903년 러·일전쟁 중 일본군 진입 장소이던 평안도 사람들은 한겨울 추위 속에서 피난길에 올랐다. 그런데 인근에 교회가 있는 마을

12) 위의 책.

13) 김진호,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우파” - 또 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87,

사람들은 모두 교회로 몰려갔다. 그 교회들은 미국 북장로회 소속이었다. 그제나 이제나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땅은 치외법권이였다. 그 교회에 성조기가 걸려 있었다. 이는 개신교인들에게 성조기가 동맹으로서의 상징을 넘어 구원자의 기호처럼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당시 개신교 지도자들은 미국이 우리를 일본으로부터 구원해준 나라, 공산당으로부터 지켜준 나라, 굶주린 조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 준 나라라고 생각했다.¹⁴⁾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지나며 미국은 늘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하나님도 미국인처럼 생겼을 것이라는 무의식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생각을 무분별하게 수용한 우파 개신교들에게 성조기가 태극기보다 한 단계 위라는 인식은 2004년 시청 집회에서 한 대형교회 목사가 교인들 앞에서 영어로 기도한 해프닝 앞에서 무의식적 식민주의는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버렸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국기는 최근 한국 극우 개신교 집단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선민' 의식과 같은 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은 구약의 노아 계보에서 그 흔적을 찾고 있다. 노아의 아들 중 셈, 혹은 셈의 4대손인 욥단, 그도 아니라면 이스라엘 12 부족 중 단족의 계보에 한국인들 끼워 맞추고 한국인이 진짜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은, 참 선민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국기는 그 선민주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시위하는데 중요한 기재로 작용한다.

김진호는 이러한 4부류의 집단에 노년층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숫자적으로는 노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다양한 교회에 소속된 청년들은 가짜뉴스 유통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활동을 한다. 김진호는 바로

14) 위의 책, 89.

그 청년들을 양성하는데 한국 교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¹⁵⁾ 이들의 역할이 개교회 청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자세히 연구된 바 없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극우 개신교 단체와 연계된 청년들은 교회 지도자로 교육받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물론 대다수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기독교인으로 일반화 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비판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 교회 내부에서도 이러한 극우 세력을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 혐오스럽게 바라볼 뿐,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광장의 태극기, 가짜 뉴스, 극우 집단 모두를 관통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서 있지만 ‘한국 교회’는 정작 그 자리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한국 교회가 지향해 온 근본주의적 신앙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자 고개를 돌릴수록 광장의 혐오는 진화하며 새로운 혐오의 대상을 찾아나서고 있다.

III. 광장의 혐오, ‘종북게이’를 투사하다

2014년 극우주의 연구 학자 그룹케 교수(Thomas Grumke, 1970~)¹⁶⁾가

15) 위의 책.

16) 토마스 그룹케(Thomas Grumke, 1970~) 는 최근 세계적으로 극우주의 연구에서 주목 받는 정치 사회학자로 프랑크푸르트 대학(oder)에서 정치 및 문학을 전공했고 미국 우익 극단주의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 년 독일 베스트팔렌주의 노르트라인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극우 집단 연구를 넘어 전 세계 각지의 극우 세력의 현상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그룹케 교수는 2014년 중앙대학교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극우주의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국내에 소개되었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사회의 극우주의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의 극우주의 연구는 대부분 독일어로 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 인용한 그룹케의 연구는 Thomas Grumke, "The transatlantic dimension of right-wing extremism", *Human Rights Review*, Volume 4, Issue 4, July 2003, pp 56-72 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 기사를 참조했다.

방한한 때는 일베회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면서 이른바 치킨과 맥주 파티를 하던 즈음이었다. 그는 일베, 그리고 당시 극우 집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독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왜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타인이나 다른 집단을 이토록 증오할 수 있는지”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의미 있는 물음을 던졌다.

그렇게 교수는 극우란 ‘저항 운동에 저항하는 Gegenbewegung’ 특징을 갖는데, 즉 자신들이 지금까지 고수해 온 가치가 밀려나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가 결국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극우주의라고 진단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60년대 이후 나타난 양성 평등, 동성애 인정, 여러 포괄적 시민권 등 변화를 변화 이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극우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한다.¹⁷⁾

그는 이 과정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우 주의자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매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어떤 특정한 인종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극우 성향은 경제력, 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등과 무관하며 가난했던 상황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되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극우가 되기 더 쉽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분과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표출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드러낸 극우적 성향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공유된 정서를 바탕으로 그동안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공유하게 된다. 결국 영역을 침범하는 무리들에 대한 적대적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17) 정용인, “극단주의 연구 권위자 토마스 그루케 독일 교수 인터뷰” 『경향신문』 2014년 9월 20일자, http://news.khan.co.kr/kh-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01440531, 접속일 2018.08.22.

그렇게 교수는 이 지점에서 극우적 성향의 정체성에 ‘인종적 극우 성향’과 더불어 ‘종교근본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⁸⁾ 사실 종교근본주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는지는 명백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대부분 이러한 정체성을 담보한 무리들은 “나는 깨끗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피해를 당했다.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것은 너, 불결하고 더러운 너희들이다” 라는 정서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

누스바움(Martha C. Nussbaum)은 이러한 정서를 ‘망상’¹⁹⁾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망상은 이성적으로 걸러내지 않은 ‘투사적 혐오 projective disgust’²⁰⁾를 야기시킨다는 점에 주목한다.²¹⁾ 사실 우리 사회는 어떤 특정 대상을 혐오하면서 그들에게 불이익이 될 법을 적용하고 정당화하고는 한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문제는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원초적 혐오’는 ‘투사적 혐오’로 구분하는데, 원초적 혐오는 하수구에 낀 오물이나 동물의 배설물, 인간의 체액 등에 대한 혐오이다.²²⁾ 이러한 혐오는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일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감정으로, 위험을 피하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 ‘투사적 혐오’²³⁾는 다르다. 이것은 원초적 혐오의 대상을 향한

18) 위의 글.

19)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지향과 헌법 *From Disgust to Humanity*』 강동혁 옮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6), 55.

20) 위의 책, 54.

21) 누스바움은 『혐오에서 인류애로』 그리고 『혐오와 수치심』에서 인간의 감정인 ‘혐오’에 대한 광범위한 통찰을 통해 ‘혐오’ 감정이 도덕과 입법의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시도는 지금, 한국 교회가 지목해야 할 중요한 통찰이라고 보인다.

22)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From Disgust to Humanity*』 54.

23) 누스바움은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하며 혐오 이슈를 다루는데 원초적 혐오란 ‘배설물, 혈액, 체액 등 인간의 동물성과 관계된 요소에서 나타나는 원초적 감정으로

역겨운 속성을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전가하고 구성원 중 몇몇을 ‘오염원’으로 규정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망상’이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망상’을 먹고 자라는 투사적 혐오가 인간 사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²⁴⁾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한 법조항들을 무효화하는 주 헌법 수정안이 주민 투표를 통해 통과된 적이 있다. 동성애자는 소수자 우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이었는데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바로 ‘로머 대 에반스’(Romer v. Evans)판결²⁵⁾이다. 누스바움은 이 판결을 혐오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차별하는 법률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첫 번째 판결로 비중있게 다룬다.

연방대법원은 어떤 법안이 민주적 합의를 따랐든, 선거구 전체가 찬성을 하든 연방헌법의 ‘평등보장조항’을 위반하는 도시 법안은 통과될 수 없다면서 연방대법원은 “다수가 어떤 법을 원하더라도 그 법이 반감이나 혐오에만 의존하는 경우, 해당 법안은 평등보장조항에 따라 금지된다”²⁶⁾

죽음이나 부패 등과 관계된다’ 이러한 원초적 혐오가 이성적 검토를 거치지 않고 다른 대상으로 확장하게 될 때, 이를 누스바움은 ‘투사적 혐오’라고 부른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혐오가 분개나 연민과는 다르게 도덕의 범위에서 역할을 하는 감정이 아닐 뿐 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나 행동으로 활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혐오는 혐오의 대상을 열등하게 여기며 특정 집단이나 행위에 혐오를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즉 혐오는 혐오의 대상을 배제하고 열등한 존재로 격하시키는 경향 때문에 도덕적 가치를 담지하지 못하며, 오히려 도덕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Disgust, Shame and the law*』, (서울: 민음사, 2015), 191.

24) 실제로 누스바움은 혐오와 수치심이 형법에서 형량을 결정하거나 범죄에 대한 항소, 혹은 법적 규제의 근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다양한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한다.

25) 누스바움은 이 판결의 승리는 허용 불가능한 영역을 인지하게 해준 국지적 승리이며, 미국의 각 주를 단위로 차별금지법이 있지만 연방 차원의 법안이 없음에 대한 유감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로머 재판의 판결이 처음이기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182.

26) 위의 책, 89.

고 판결했다. 당시 콜로라도 주 정부는 수정헌법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의 특권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연방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형식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표적 집단을 향한 혐오'가 수정헌법을 만든 동기²⁷⁾라고 본 것이다.

누스바움은 기독교 우파가 바로 이러한 혐오를 도덕적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혐오를 기반으로 한 방침들을 공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⁸⁾ 그런데 이 기획 속에서 혐오는 신앙심보다 뿌리깊은 인간적 반응을 형성하고 나아가 성서를 선별적으로 읽어내는 특이한 방식까지 만들어내는 기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은 단 몇 문장뿐인데 반해 탐욕에 빠지지 말라거나 운세를 점치는 죄에 대한 지적이 더 많지만 그런 것을 벌주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²⁹⁾면서 동성애 혐오에 빠진 기독교를 향해 비난의 수위를 높인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혐오 대상과 유사한 혐오 집단을 지목하고 전파함으로써 ‘이중적 망상’³⁰⁾ 매커니즘을 양산하게 되는데 그 망상은 ‘타자는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라는 이중의 거짓에 근거할 때 가능해진다. 그리고 결국 투사적 혐오는 사회적 망상과 연계되어 소수자를 손쉽게 낙인찍고 격리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로 작용한다.³¹⁾ 누스바움은 미국 기독교의 경우 이런 양상이 매우 두드러진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비단 미국의 경우가 아니다.

27) 위의 책, 167.

28)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 성적지향과 헌법 *From Disgust to Humanity*』, 22.

29) 위의 책, 66~67.

30) 위의 책, 56.

31) 양희승, “주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십니까? 『청어람 매거진』 2016년 4월 19일자, <http://ichungeoram.com/10363> 접속일 2018.08.15.

한국 사회에서 극우 개신교 집단들도 이러한 혐오 메커니즘 속에서 새로운 혐오 대상을 탄생시켰는데, 바로 ‘종북계이’다. ‘종북계이’는 동성애자들이 종북을 한다는 말인지, 종북을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라는 말인지 조차 의미를 분간할 수 없는 모호한 단어이다. 그런데 이 속에 내포된 의미망은 깊고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빨갱이’로 일관되었던 우파의 혐오 대상이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또 하나의 보수 이데올로기와 연합해서 진화하는 단면으로 나타났다.³²⁾ 분명 지칭하는 각각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구분되지만, 이 둘이 결합되는 순간, 종북계이는 누구인지 왜 사회 기강을 흔든다는 것인지 정체는 모호해지며 혐오와 공포는 배가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기이한 ‘종북계이’는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합체된 것일까?

우선 반공주의와 역사를 함께하는 ‘종북 혐오’는 1980년 사회 구성체 논쟁에서 사용된 주체사상파(주사파) 라는 단어와 연관되는데 진보정당들의 연합체 구성 당시 ‘친북’과 같은 노선을 갈 수 없는 세력을 ‘종북’으로 칭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종북’이라는 단어는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전교조, 민노당, 광우병 촛불 집회 주최 단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이 대표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종북 세력’으로 불렸다.³³⁾ 진보 정치권의 복잡한 스펙트럼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종북’이라는 단어 하나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용이한 개념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음으로 ‘계이’ 혐오는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논의 시작과 궤를 같이 해 왔다. 2007년 구체적으로 법안 제정이 시도되었지만

32) 조민아, 대들의 ‘색(色)’, ‘계(計)’: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과 ‘종북 계이’의 탄생을 통해 본 기독교 우파의 타자 만들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편, 『당신들의 신국: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 (서울: 돌베개, 2017) 318.

33) 위의 글.

여야 기독교 의원들의 모임인 의회선교연합과 극우 개신교 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3년이 지난 후, 2010년 두 번째 시도는 보수 세력의 반대를 고심하던 법무부의 눈치보기로 유야무야 사라졌다. 그리고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등 국회의원 51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게 되는데, 법안에는 ‘학력, 혼인상태, 종교, 정치적 성향, 전과,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를 가르쳐야 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당시 보수 기독교단체들이 신문 광고로 실은 해당 의원실을 향한 테리에 가깝게 조직적으로 반대하면서 의원들은 결국 발의를 철회하고 말았다.³⁴⁾ 2016년 ‘차별금지법’은 임기 만료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2018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신임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다시 ‘차별금지법’ 재정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최 위원장이 과거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는데 동의하고,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도록 한 군 형법 제 92조 6항 폐지를 주장한 점을 들어 인권위원장 자격을 문제 삼고 있어 앞으로도 제2의 차별금지법 전쟁이 예고되고 있는 중이다.

차별금지법 중 ‘정치적 성향과 성적 성향에 대한 반대 사안은 극우 개신교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 신앙을 자처하는 중대형 교회들이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성적 성향에 대한 강한 혐오 표현이 공감을 얻고 있다. 교회에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는 논조로 시작된 반대 여론은 차별금지법에 드러난 다른 조항들의 비판으로 이어지며, ‘성적 성향’ 과 ‘정치적 성향’ 의 논의가 합체

34) 이주연, “중복게이” 논란에 파문된 차별금지법 결국..”, 『오마이뉴스』 2013년 1월 18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6482 접속일 2018.10.02.

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렇게 탄생한 단어가 바로 ‘중복게이’ 인 것이다.

조민아는 ‘중복게이’ 합체의 징후를 두 가지로 요약한다. 첫째는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균형법 제92조 “계간(鷄姦) 등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가 동성애자의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건이다. 다음은 2011년 경기도와 서울 교육청이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학생인권 조례를 발의한 일이다. 또한 때마침 SBS에서 동성애가 묘사되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자, 반대 여론은 들끓기 시작된다.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보수 일간지에 “내 아들이 게이되어 에이즈 걸리면 SBS에서 책임져라”라는 제하의 광고를 쏟아냈다. 이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지금까지 동성애 뿐 아니라 가짜뉴스, 난민 이슈 관련해서 끊임없이 행동을 보수 개신교 단체³⁵⁾다, 당시 개신교 극우 단체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하며 이 두 법안에서 ‘동성애’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이들의 동성애 혐오 표현들 중에 ‘중복, 빨갱이, 좌파’ 등의 단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³⁶⁾

이들은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보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지금, 군대와 학교를 중심으로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교사의 권위가 실추될 것”이라면서 동성애는 국가와 미래의 근간을 흔드는 적화세력들의 치밀한 전략이라며, 반공주의와 동성애 혐오를 한 범주의 위협 세력으로 묶어 내기 시작한 것이다.³⁷⁾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성애와

35)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대표 길원평 목사는 최근 한겨레 신문의 ‘가짜뉴스 공장, 에스더’와 관련된 ‘한겨레가짜뉴스피해자모임’ 25명 중 한명으로 극우 개신교 활동가이다.

36) 토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저들에게 ‘악의 축’은 빨갱이와 동성애인가?” 『프레시안』 2011, 11.2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685#09T0>, 접속일 2018.10.02.

빨갱이의 만남이 본격화 되고 2013년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에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향해 ‘종북계이’라고 명명하며 그 의미를 확연하게 드러내게 되었다. 결국 ‘종북계이’라는 혐오 대상은 차별금지법 앞에 무릎을 꿇고 이후 혐오 표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영역을 넘어 극우 개신교 단체들을 결속하는 강력한 기재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혐오 연대는 결국 지난 4·13 총선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 반대, 간통죄 부활, 이슬람 특혜 철폐 등 ‘혐오 공약’을 전면에 내걸고 3%가 넘는 득표 성과를 거두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원외 모든 진보 정당 득표수 보다 많은 결과였고, 역대 기독교 정당이 얻은 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 이런 결과에 고무된 극우 개신교 단체들은 점점 더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IV. 광장, 상상의 힘을 만나다

그런데 최근 광장에 남은 자들은 가짜뉴스 진원지로 지목 되어 사회적 지탄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며 거짓을 덧입어 가고 여전히 ‘기도 제목’ 카톡은 더욱 극성스럽게 올려댄다. 종북이라는 객관적으로 공인된 적대 세력에 제2, 제3의 동성애와 같은 교집합적 요소를 덧붙인 ‘종북이슬람’ ‘종북외노’ ‘종북메갈이’ 종횡무진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또 다른 ‘종북계이’라는 대상에 투사된 극우 개신교 집단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가치에 반대되는 것을 불쾌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낙인찍고 자신들이 고수하는 가치만이 살아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망상’의 양상이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37) 조민아, “그대들의 ‘색(色)’, ‘계(計)’: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과 ‘종북 계이’의 탄생을 통해 본 기독교 우파의 타자 만들기”, 328.

그들은 주저함 없이 “냄새나고 불결한 너희는 더럽고 추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하고 없애야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는 매우 흠결 없이 그 문제에서는 완전무결하고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마 ‘종북게이’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성애자이며 오랜 시간 동안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켜왔다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주요한 공격의 무기가 되어주었다. 즉 적어도 동성애와 종북에 대한 적극적인 배제의 태도만큼은 완전무결하다는 자아도취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 점은 소위 ‘종북게이’를 처단할 만한 충분한 개연성을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납득할만한 동기부여 때문에 갖특을 비롯한 개신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소통된 가짜 뉴스들은 종횡무진 세상을 가로지르며 진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새롭게 등장한 ‘난민 혐오’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 가능하다. 뉴스바움이 지적한 것처럼 타종교에 대한 혐오는 성경을 선별적으로 읽어내는 데 매우 탁월한³⁸⁾ 극우 개신교인들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뉴스바움은 과거에는 “혐오와 공포의 정치가 종교 영역을 지배했다”³⁹⁾고 말한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는 사탄적인 것들과 접촉하지 않으려하고 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혐오를 갖고 타인을 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저 ‘타인을 존중하라’는 설교는 전혀 적실성 없는 구호로 맴돌기만 했다. 이에 뉴스바움은 타인을 존중하려면 타인을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사탄도 괴물도 아닌 진짜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⁴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상상력

38) 마사 C. 뉴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From Disgust to Humanity*』, 22.

39) 위의 책, 90.

40) 위의 책, 26. 뉴스바움은 다른 누군가를 인간으로 보려는 유일한 방법을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은 상호적 대화를 통해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비난하기보다 자신의 ‘오류가
 능성’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가능해 진다라고 생각한다. 즉 타인의 잘못
 에 분노하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고귀함과 연약함이
 공존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를 ‘인류애의 정치
 Politics of Humanity’⁴¹⁾라고 부른다. 동료 시민들에 대한 평등한 존중과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무엇인지 상상하는 진지하고도 공감적인 시도의
 조합이야말로 ‘인류애의 정치’이다.⁴²⁾ 우리 사회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
 다’라는 전제 아래 상대방을 나와 같은 인간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세계를 상상해 보는 태도가 바로 상상
 력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은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선구적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누스바움은 보수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미국 사회에
 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에 개선된 데는, 동성애에
 관한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영화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게이와 레즈비
 언의 삶이 이성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동성애자가 나의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기 때문이다.⁴³⁾

인류애의 정치는 이 같은 ‘상상적 참여’, 즉 타인이 삶에서 무엇을 추구
 하고 있는지 상상하는 능력인데, 앞서 연방대법원이 동성애와 관련해 전
 향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잘 해석했기 때문
 이 아니다. 동성애 차별의 역사적, 사회적 근거를 토대로 그들의 경험과
 감정에 공감하려고 노력한 덕분이었다.

누스바움은 “오직 상상력만이 도덕과 법률의 차갑고도 추상적인 틀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리가 그 틀에 의지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

41) 위의 책, 93.

42) 위의 책.

43) 위의 책, 280-206.

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상력이 없는 존중이란 정치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다.”⁴⁴⁾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상력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V. 나가는 말: 광장의 새로운 주인공, 분별 있는 관찰자

누스바움은 이러한 인류애의 정치를 위해 아담 스미스가 제안한 ‘분별 있는 관찰자(judicious spectator)’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⁴⁵⁾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분별 있는 관찰자’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분별 있는 관찰자의 판단과 대응은 공적 합리성의 패러다임을 (지도자에게든 시민에게든)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말한바 있다. 누스바움은 ‘분별 있는 관찰자’의 역할을 제시한 이유는 문학 작품을 통해 형성된 공감이나 두려움의 감정이 합리적 감정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감정을 신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그녀는 스미스가 주장한 것처럼⁴⁶⁾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그런 분별 있는 관찰자의 입장을 갖게 해 준다고 말한다.

물론 분별 있는 독자가 문학 작품 읽기 과정을 통해 형성하는 인간적인 희망과 두려움에 대한 관점이 잘못될 경우가 있다. 문학작품은 세계를 왜곡할 수도 있고, 역사적·과학적 사실을 거짓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책을 읽는 과정에 지속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⁴⁷⁾

44) 위의 책, 29.

45) 마사 C. 누스바움, 『시적 정의 : 문학적 상상력과 공적인 삶 *Poetic Justice*』 박용준 옮김, (서울 : 궁리출판, 2013), 42. 누스바움의 ‘분별 있는 관찰자’에 대한 언급은 책 제목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이, 법의 영역에서 문학적 상상력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법의 영역을 넘어서 그것이 사회 정의로 실현되는 가능성을 ‘시적 정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

46) 위의 책, 163.

47) 위의 책, 165~166. 누스바움은 이 과정을 ‘공동 추론’이라고 설명하는데, 윤리 이론과

중요한 것은 분별 있는 관찰자는 감정 이입을 넘어서 자신만의 관찰자적 관점에서 상대의 고통의 의미와 그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⁴⁸⁾ 즉 자신이 목격하는 사건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염려하는 친구로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존재이다. 누스바움은 이러한 존재를 설명하기 위한 긍정적인 판례 한 가지를 제시한다.

1984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건으로 문서위조, 은행 강도로 실형을 살던 수감자 파머가 자신의 감방을 강압적으로 압수수색한 교도관 허드슨에게 제기한 소송이었다. 파머는 그 수색이 자신을 괴롭히고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도관은 밀수품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파머는 자신의 개인 재산인 사진과 편지를 교도관들이 의도적으로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당한 수색·체포를 금하는 연방헌법 수정조항 4조, 적법절차를 규정한 14조를 위배에 해당되었다. 하지만 대다수 판사들이 파머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편지나 사진과 같이 사소해 보이는 개인 물품이 “한 죄수의 인간 존엄성과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상상함으로써 파머의 독자성과 개별성”을 인정했다. 스티븐스 판사는 “죄수와 다른 시민들의 차이를 인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둘을 잇는 공통된 인간의 관심, 이를테면 가족, 집에 대한 추억, 자기 개선 등에 대한 염려 등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그의 권리를 포용”했다고 한다.⁴⁹⁾

누스바움은 스티븐스 판사가 헌법 해석만이 아니라 문학적인 ‘분별 있

상호 조언은 문학 작품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교해지고 감정의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누스바움은 문학 작품에 대한 순진하고 무비판적인 의존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48) 위의 책, 193.

49) 위의 책, 209~210 참고.

는 관찰자'적 시각으로 법리를 전개할 줄 알았다면서 “인류애가 바탕이 된 비판적 상상력과 인권존중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만하다”⁵⁰⁾고 높이 평가한다.

물론 누스바움이 주장하는 이러한 맥락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적실성 있는 제안일지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감정을 근거하는 법 해석과 사회 정의로의 적용에 대한 부분과 문학 작품이 갖는 다양성과 한계 등은 다각도로 고려 대상이라고 본다. 하지만 ‘어떠한’ 문학 작품은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이로 인해 ‘공적 영역을 변화시키는 전복적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상상력에 짓는 공감과 연민 등의 감정이 공공의 합리적 추론에 근본 토대가 된다’는 점⁵¹⁾에 한국 교회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떠한’ 문학 작품보다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성서 내러티브’⁵²⁾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성서 내러티브는 우리 삶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하나님께 향해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일, 즉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삶은 ‘성서 내러티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우어워즈(S. Hauerwas)는 그 내러티브 중 예수의 이야기, 특히 공관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는 예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하우어워즈에게 성서는 ‘하나님과 함께 여행하

50) 조효제, “인권 인문학 소묘” 『한겨레신문사』 2015년 11월 10일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6799.html#csidx3b9c8a9b0f1e822a0b11d1894011271> 접속일 2018.08.22.

51) 마사 C. 누스바움, 『혐오에서 인류애로: 성적 지향과 헌법 *From Disgust to Humanity*』 259. 옮긴이의 말 참조.

52) 이지성, ‘하우어워즈 내러티브 윤리의 주요 개념 및 방법론적 특징’ 『신앙과 학문』 vol.12 No.2 (2007) 102-132. ‘단 하나의 내러티브에 관한 내용’ 참조.

는 사람들의 내러티브⁵³⁾로 본다. 또한 그는 ‘여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내러티브와 덕의 장소가 본래부터 뒤섞여 있다’고⁵⁴⁾ 주장한다. 즉 성서 내러티브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성품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다. 바로 그 내러티브는 기독교를 유지,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지금도 내러티브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 내러티브에 따라 온전해짐을 경험하게 된다.⁵⁵⁾

이제 ‘분별 있는 관찰자’로 돌아가 본다. 한국 교회는 이미 진실성과 연대성, 그리고 구속성⁵⁶⁾을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내러티브를 공유한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러티브 속에는 당시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었던 주인공 예수 뿐 아니라, 세리도 창녀, 문둥병자, 간음한 여인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들을 혐오한 예수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가장 혐오가 끓어 오른 현장,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과 그 분노의 광장에서 예수는 단지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과연 예수님이 그 혐오의 광장에 새긴 말씀은 무엇일까? 돌 던지는 무리에 서 보기도 했고 또 돌 맞는 여인이 되기도 했다. 어설픈 예수님 흉내를 내 보며 땅 바닥에 구부리고 앉아 손가락으로 끄적거리 보았다.

53) S.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24

54) 위의 책.

55) 최근 한국 기독교와 혐오 현상에 대해 하우어워즈를 토대로 연구한 이근식은 “평화를 덕으로 보고 공동체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평화의 공동체를 완성해 나간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통하여 혐오 현상의 해결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하우어워즈가 미국교회의 폭력성의 원인을 소유의 문제로 본 것처럼, 한국교회의 분열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소유’에서 자유로운 우정과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지 않은 하우어워즈의 덕과 내러티브, 그리고 공동체에 관한 참조할 만한 논문이다. 이근식, “혐오와 덕의 공동체-스탠리 하우어워즈의 덕윤리를 통한 혐오문화의 기독교윤리적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7권』 (오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7), 111~140.

56) 이지성, “공감의 길, 고통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0집 (2014), 69-98 중 ‘고통의 내러티브’ section 참조.

처음에는 그 '단어'에만 집착했다. 그러다가 한 순간 '상황' 을 찬찬히 살피려고 했지만 사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다. 어설픈 선입견과 낡은 판단이 앞서가곤 했다.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단어'나 '선입견'에 의지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다. 중요한 건 쓰신 '글씨'라기 보다는 그 반복되는 몸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사태를 잠시 유보 시키고 사람들을 진정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화를 내시거나 설교를 하시기 전에 조용히 홀로 앉으신 그 모습. 제대로 '바라보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보여 주셨다. 이 내러티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분별 있는 관찰자'였다. '땅에 쓰신 글씨'는 이 혐오의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해 '목격하는 사건에 대해 연루되지는 않았더라도 공동체를 염려하는 친구', '분별 있는 관찰자'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제나 이제나 한껏 화가 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죄 없는 자 죄 지은 자 구분 없이 거칠게 혐오의 돌맹이를 집어 던지고 있다. 그 혐오의 광장을 방관하고 침묵해 온 시간, 기독교는 어느새 혐오의 생산자라는 오명을 얻고 가짜 뉴스의 주범으로 지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기독교는 지난 2천년의 역사 속에서 공적 영역을 변화시키는 전복적 힘의 원천이었던 성서 내러티브를 공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광장에서 '분별 있는 관찰자'가 될 때, 한국 교회는 가짜 뉴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복음) 전달자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Grumke, Thomas, "The transatlantic dimension of right-wing extremism", *Human Rights Review*, Volume 4, Issue 4, July 2003.
- Nussbaum, M. C., *Upheavals of Thought :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2001.
- _____. "Emotions as Judgements of Value and Importance", ed. by Robert C. Solomon, *Thinking about Feelings :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2004.
- _____. "Replies", *The Journal of Ethics*, vol.10, 2006.
- _____. 『시적 정의』, 박용준 옮김, 궁리, 2013.
- _____.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2015.
- _____. 『혐오에서 인류애로』, 강동혁 옮김, 뿌리와 이파리, 2016.
- Hauerwas, 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 제3시대 그리스도연구소 편, 『당신들의 신국』, 서울: 돌베개, 2017.
- 구형찬. "혐오와 종교문화: 한국 개신교에 관한 소고." 『종교문화비평』 33권 (2018. 03) 15-54.
- 김진호. " '태극기 집회'와 개신교 우파 - 또 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황해문화』 서울: 새얼문화재단, 2017.
- _____. "한국 개신교 반공주의와 '증오의 정치학.'" 『모멘텀』 vol.01, 서울: 자음과모음, 2014.
- 김현준. "개신교 우익청년대중운동의 형성: 극우정치에서 개신교의 효용과 문화 구조." 『문화·과학』 91, 서울: 문화과학사. 2017.
- _____. "신국, 극우 개신교의 정치적 상상력" 『맑스코뮤날레 종교 세션 자료집』, 2017.
- 손희정. "혐오의 시대 - 2015년, 혐오는 어떻게 문제적 정동이 되었는가." 『여성이론』 제32호 (2015.05) 12-42.
- 양희승. "기독교발 가짜뉴스의 실상과 문제" 『시선 2017~2018 단행본 출판기념 이

- 야기 마당:가짜뉴스와 개신교 자료집』,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2018.
- 이근식. “혐오와 덕의 공동체”,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 (2017), 111~140.
- 이지성. “하우어위즈 내러티브 윤리의 주요 개념 및 방법론적 특징”, 『신앙과 학문』 vol.12 No.2 (2007) 102-133.
- _____. “공감의 길, 고통의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기독교사회윤리』 제30집 (2014), 69-98.
- 조민아. “그대들의 ‘색(色)’, ‘계(計)’: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과 ‘중복 게이’의 탄생을 통해 본 기독교 우파의 타자 만들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편, 『당신들의 신국: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와 그리스도교』, 서울: 돌베개. 2017.
- 최현철.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철학탐구』 제46집 (2017.05) 175-199.
- 김동문, “괴담에 속지 않기 위한 10가지 제언” 『청어람매거진』, 2016.2.3.
<http://ichungeoram.com/10038>.
- 김완, 박준용, 변지민, “[단독 동성애 ·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신문』 2018. 9.2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 박기용, 박유리, “한국 기독교는 혐오와 배제로 극우정치를 이끈다.” 『허핑턴포스트』 2016. 4.23, http://www.huffingtonpost.kr/2016/04/23/story_n_9763500.html.
- 손희정, “성적 수치심과 혐오의 프로파간다: 증오로 성장한 개신교 우파.” 슬로우뉴스, 2015 <http://slownews.kr/39113>.
- 양희송, “이슈 따라잡기_주님의 이름으로 혐오하십니까?” 『청어람 매거진』 2016. 04.19 <http://ichungeoram.com/10363>.
- 이용필, “문재인 정부 탓에 경제 · 안보 자살, 한국교회 회개해야 - 한기총 · 세기총 · 한사랑선교회 등 8월 15일, 구국 금식 기도 성회”. 『뉴스앤조이』 2018. 8. 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99>.
- 이주연, “중복 게이” 논란에 파문된 차별금지법 결국...”, 『오마이뉴스』 2013. 1. 1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6482.
- 조혜수 · 조유빈 · 안성모, “광장에 남은 ‘태극기집회’, 그들은 누구인가” 『시사저널』 2018.05.31. <http://www.sisajournal.com/journal/article/175649>.

- 조효제, “인권 인문학 소묘” 『한겨레신문사』 2015. 11. 10.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6799.html#csidx3b9c8a9b0f1e822a0b11d1894011271>.
- 정용인, “극단주의 연구 권위자 토마스 그룹케 독일 교수 인터뷰” 『경향신문』 2014. 9. 20. http://news.khan.co.kr/kh-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01440531.
- 토리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공동행동, “저들에게 ‘악의 축’은 빨갱이와 동성애인가?” 『프레시안』 2011. 11. 29,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685#09T0>.
- 한채윤, “동성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혐오에 대처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열두 가지 질문”, 청어람ARMC, 2016 <http://ichungeoram.com/10384>.

논문투고일: 2018년 10월31일

심사개시일: 2019년 11월09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11일

 • 국 문 초 록 •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지금, 여기. 한국 기독교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 언론에 등장하게 되었다. 진원지로 주목된 소위 극우 기독교로 불리는 이들은 광화문 광장의 집회로 세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국 보수 기독교들은 이들의 활동에 일면 동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혐오한다. 교회 내에서 구성원들 간에 태극기충과 촛불좀비가 함께 앉아 이웃 사랑을 기도하면서 서로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 기독교는 이러한 극우 세력을 곱지 않은 시선을 넘어 혐오스럽게 대할 뿐,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문제가 한국 기독교만의 책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혐오 현상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가짜 뉴스 주범이 아닌 좋은 소식(good news),의 전달자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 논문은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는 극우 개신교인들의 양태와 활동 방식, 그들의 동기에 관심을 둔다. 특히 최근 새롭게 등장한 비판 대상인 ‘종북게이’를 투사하는 projective 그들의 혐오 분석을 통해 한국 교회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그 해결의 실마리로 마사 누스바움의 ‘분별 있는 관찰자 judicious spectator’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극우 개신교, 가짜 뉴스, 태극기 집회, 종북게이, 혐오, 마사 누스바움, 투사적 혐오, 분별 있는 관찰자
